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인가?*

홍 지 호 · 여 영 서

【국문요약】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실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가 필연성일 경우에만 연역 논증이다. 이 경우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표현이 된다. 이와 달리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를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도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우리는 의도 기준을 옹호 하는데, 실현 기준은 생략 논증을 연역 논증이나 귀납 논증 중 한 쪽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참조해야 한다는 난점, 또 나쁜 논증과 논증이 아닌 명제들의 집합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의도 기준 역시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자비의 원리에 호소하면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결론에 대한 신념이나 논증 제시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논증 제시 의도와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의도 기준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요어】 부당한 연역 논증,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 의도 기준, 실현 기준, 이영철

투고일: 2019. 1. 21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9. 2. 17 게재확정일: 2019. 2. 13

* 이 논문을 심사하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

‘둥근 사각형’이나 ‘똑똑한 바보’는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표현이다. 형용을 하는 말 ‘둥근’과 형용을 받는 말 ‘사각형’ 사이에 모순이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한 연역 논증’도 형용 모순인가? 그렇다는 것이 이영철(2016)과 새먼(2004)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라는 이영철과 새먼의 입장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대한 특정한 구분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그 구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 뒷받침 관계가 실현되어 있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고, 전제와 결론 사이에 개연적 뒷받침 관계가 실현되어 있는 논증은 귀납 논증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당한 논증과 연역 논증의 외연이 같다는 것이고 논증의 타당성이 연역 논증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영철과 새먼은 논증을 연역 논증, 귀납 논증, 그리고 나쁜 논증으로 구분하며, 전제와 결론 사이에 타당성이 성립하면 연역 논증, 개연적 뒷받침이 성립하면 귀납 논증, 그리고 타당성도 개연적 뒷받침도 성립하지 않으면 나쁜 논증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표현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옹호하려는 구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하고 있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고, 그것들 사이에 개연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하고 있는 논증이 귀납 논증이다. 그렇다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연역’과 ‘귀납’은 논증을 분류하는 개념이고 논증 제시자의 의도는 연역과 귀납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다.

논증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분류된 다음, 각각 다시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연역적 의도가 실현된 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 그리고 귀납적 의도가 실현된 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 중 연역적 의도가 실현되지 않은 논증을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형용모순이 없다. 부당한 연역 논증이 연역 논증으로 분류된 것은 논증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고, 연역 논증 중 부당한 논증으로 분류된 것은 논증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구분 기준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수의 논리학 교재들은 앞에서처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논증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시 각각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공부한 학생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부당한 연역 논증은 좋은 귀납 논증일 수 있는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지 않았다. 따라서 땅이 젖지 않았다.”와 같은 전건 부정의 오류 사례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다. 따라서 비가 왔다.”와 같은 후건 긍정의 오류 사례이다. 이것들은 부당한 연역 논증의 사례로 제시되는데, 대개의 학생들은 그 두 논증들에서 개연적 뒷받침 관계를 찾아낸다. 그러니 학생들은 그 두 논증을 부당한 연역 논증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좋은 귀납 논증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어떤 논증이 연역 논증이면서 동시에 귀납 논증일 수 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옹호하려고 하는 구분 기준은 그것을 허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옹호하려고 하는 구분 기준을 별다른 논의 없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고 따라서 그런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리

학 교재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이 형용모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는 명백한 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논리학 교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서로 대립적인 두 기준을 혼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미 드러났듯이, 그 두 기준은 다음과 같은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이다.¹⁾

실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의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이영철과 새먼이 받아들이고 있는 기준은 실현 기준이고, 우리가 받아들여려고 하는 기준은 의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의 정의에 대해 반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논증의 정의하는 문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먼저 논증의 정의에 대해 반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2장). 이를 통해 우리는 논증의 정의에는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적절한 것이라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 의도 기준을 받

1) 미리 밝히면, 본 논문에서 우리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모든 종류의 기준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기준은 ‘의도 기준’과 ‘실현 기준’, 그리고 두 기준을 선연적으로 조합한 기준, 즉 ‘선연 기준’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취급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이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 기준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분류하는 기준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3장). 이를 통해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런 다음 먼저 의도 기준과 대립하는 실현 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4장). 이를 통해 실현 기준이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문제점은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을 형용모순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 교육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증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의도 기준을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점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고(5장), 그러한 논의 중에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을 선언적으로 조합하는 기준, 말하자면 ‘선언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6장).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2. 논증의 정의

논리학의 출발점인 논증의 정의 문제에 있어 대개의 철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급 논리학 시간에 소개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 논증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다. 여기서 결론은 주장에 해당하고 전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새먼의 정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새면에 따르면, 논증은 결론이 되는 하나의 진술과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서술하는 하나 이상의 진술, 즉 전제로 이루어진다.²⁾ 그러나 논증을 이 정도로 정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다음과 같은 선우환의 입장을 살펴보자.³⁾

타당하지 못한 (또는 올바르지 못한) 수많은 논증들을 논증 아닌 문장 집합들로부터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문장 집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문장 집합만을 가지고서 결정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 논증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논증들이 문장 집합들이라는 것 외에 그 문장 집합들이 어떤 의도로 선택된 문장 집합들이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밑줄은 우리의 강조)

이러한 선우환의 주장에 따르면, 논증 제시자가 가지고 있는 논증 제시 의도는 논증 여부를 파악하거나 논증을 정의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⁴⁾

아마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으로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새면도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할 것이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위해 논증을 정의하기 위한 요건을 ‘명제 집합 요건’과 ‘전제-결론 요건’으로 구분해 보자. 여기서 명제 집합 요건은 논증이 명제들의 집합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제-결론 구성

2) 새면(2004) pp. 5-6 및 Salmon(1973) p. 5 참조.

3) 선우환(2016), p. 189.

4)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논증을 정의하는 데 ‘논증 제시 의도’에 의존하는 것은 순환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논증 제시 의도’라는 표현만을 고려하면 그 지적은 올바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논증 제시 의도’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유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순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요건은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 중 전제 역할을 하는 것과 결론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논증에 대한 새먼의 정의를 염두에 두면, 새먼도 이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논증으로 간주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특정 명제들의 집합이 전제-결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 명제들의 집합이 연역규칙을 따르고 있거나 전형적인 귀납 논증의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다른 논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명제들의 집합을 논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1>

그 정치인은 불효자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복지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사례2>

학교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따라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사례1>은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사례2>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논리 규칙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례들을 모두 논증으로 분류한다. 나쁜 논증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일단 논증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에서 첫 번째 문장은 전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은 결론의 역할을 하는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 사례들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들이 전제의 역할이나 결론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것은 물론 이 사례들에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라는 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따라서’라는 말을 통해 첫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두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의도를 읽을 수 없다면, 이 사례들을 논증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사례3>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어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례4>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자꾸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걸 보면 틀림없다.

<사례3>과 <사례4> 중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례3>은 설명으로, 그리고 <사례4>는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4>의 두 문장은 각각 전제 역할과 결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반면, <사례3>의 두 문장은 각각 설명항과 피설명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일련의 명제들이 어떠한 의도로 제시되었는지 따져보는 작업이다. 즉, 한 문장에 근거하여 다른 한 문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하나는 논증으로 다른 하나는 논증이 아닌 것으로 식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논증을 정의하는 요건 중 전제-결론 구성 요건을 충

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근거 역할을 하는 명제와 주장 역할을 하는 명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제-결론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로 논증 제시 의도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면도 논증 제시 의도가 논증 여부를 파악하거나 논증을 정의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면과 마찬가지로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영철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논리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자. 논리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을 식별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습은 전제 역할을 하는 명제와 결론 역할을 하는 명제를 정확하게 찾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를 위해 논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따라서’, ‘왜냐하면’ 등의 결론 지시어와 전제 지시어를 참조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지시어들을 통해 일련의 명제를 제시한 사람의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 교육 현장을 고려하더라도 논증 제시 의도를 배제하면서 논증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의도를 따져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논증을 정의하거나 논증 여부를 식별하는 데 논증 제시 의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논증 제시 의도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데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논증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면, 식별된 논증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데에도 논증 제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적절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논증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의도 파악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논증 제시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도 기준과 그렇지 않다는 실현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3. 적절한 기준의 조건

앞서 밝혔듯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제안되는 것은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이다. 앞에서 우리는 두 기준을 다음처럼 제시했다.

실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의도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먼저 실현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실현 기준에 따르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가 연역적이면 연역 논증이고, 귀납적이면 귀납 논증이며, 연역적이지도 않고 귀납적이지도 않으면 나쁜 논증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것은 새먼과 이영철이 받아들이는 기준이다. 다음과 같은 새먼의 주장을 살펴보자.⁵⁾

엄격하게 말한다면 올바르지 못한 연역 논증이나 올바르지 못한 귀납 논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은 타당한 연역, 올바른 귀납, 그리고 그릇된 것으로 가려진 논증이 있을 뿐이다.

⁵⁾ 새먼(2004), p. 35 및 Salmon(1973), p. 17. 이영철도 이러한 새먼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영철(2016), p. 73 참조.

이러한 새면의 주장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만이 연역 논증이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귀납 논증이거나 그릇된 것으로 가려진 논증이다. 따라서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이고, ‘타당한 연역 논증’은 ‘역전 앞’처럼 불필요한 이중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못한 귀납 논증’은 형용모순이고, ‘올바른 귀납 논증’은 불필요한 이중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새면과 이영철의 입장은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이면서 동시에 논증 평가어로 여기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연역 논증’과 같은 표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만 여긴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즉 논증 중에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입장에 선다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이 아니다. 의도 기준이 바로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 기준에 따르면, 논증에 대한 평가는 논증을 분류한 다음에 수행되는 것이다.⁶⁾

그럼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 중에서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 아니라

6) 물론 우리가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만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도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입장과 어울리는 다른 분류 기준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특수한 명제로 나아가는 것을 연역 논증으로, 그 역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나 특정 논증의 패턴을 포착하여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분류하려는 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는 점을 근거로 의도 기준을 합당한 것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실현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연역 논증’이 형용모순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은 논리교육 상의 장점 때문에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따지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현 기준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의도 기준을 비판하거나, 의도 기준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실현 기준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두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우레스가 제시한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는 적절한 기준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⁷⁾

- (가) 망라적 배타성
- (나) 평가적 개방성
- (다) 평가적 효용성

(가)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모든 논증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의 논증이 연역 논증이면서 동시에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좋은 연역 논증과 나쁜 연역 논증, 그리고 좋은 귀납 논증과 나쁜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는 논증을 평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것이 논증을 평가하는 데 아무런 쓸모도 없다면, 그 구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다.

⁷⁾ Bowles(1994), pp. 160-161 참조. 홍경남(2012)도 이 기준을 수용하면서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실현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수행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도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심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제 잠시 이 조건들이 공정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이 사실상 어떤 특정 기준에 편향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새먼이나 이영철은 나쁜 연역이나 나쁜 귀납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물론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평가적 개방성 조건을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 기준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영철은 “그 구분[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연역과 귀납 논증의 각 종류에서 좋고 나쁜 논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이는 ... 편향적인 기준이다.”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적 개방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조건만 가지고 실현 기준과 의도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4. 실현 기준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일까? 배타성은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타당한 논증은 연역 논증이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귀납 논증이거나 나쁜 논증이기 때문이다. 그럼 귀납 논증과 나쁜 논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영철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귀납 논증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논증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사례5>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두지 못한다.

⁸⁾ 이영철(2016), p. 56 각주1 참조.

실현 기준에 따르면, <사례5>는 연역 논증일까, 귀납 논증일까, 아니면 나쁜 논증일까? 셋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어야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단 <사례5>가 연역 논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제의 참이 두 번째 명제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례5>는 귀납 논증일까? 그것이 귀납 논증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제의 참이 두 번째 명제의 참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현 기준에 근거하면, <사례5>에서는 그러한 개연적 뒷받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두지 못함’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사례5>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 결국 실현 기준에 근거하면, <사례5>는 나쁜 논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5>를 나쁜 논증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례5>에는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두지 못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양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려 할 경우에는 나쁜 논증이 아닌 것을 나쁜 논증으로 분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처럼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실현 기준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정보도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두지 못함’의 긴밀한 관계에 관한 정보가 가정되어 있다면 <사례5>는 귀납 논증이고, 그러한 가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쁜 논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그 자체로 실현 기준의 입장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미국 대통령임’과 ‘바둑을 두지 못함’ 사이에 대한 긴밀한 관계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다고 해보자.

- (1)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 (2)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1)이 참이라면 <사례5>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2)가 참이라면 귀납 논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과 (2)가 모두 거짓이라면, 나쁜 논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결국 생략된 정보를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사례5>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나쁜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럼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곧바로 실현 기준의 입장을 위협하는 근거가 된다. 생략된 정보를 고려하면서 논증을 분류한다는 것은, 논증 제시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에 따라 논증을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례5>를 제시한 사람이 (1)을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고, (2)를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귀납 논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타당성을 의도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고 개연성을 의도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귀납 논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현 기준이 아니라 의도 기준에 따라 논증을 분류하게 되는 셈이다.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려는 입장이 실현 기준인데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논증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평가적 효용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난점에

부딪친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논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생략된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생략하면서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6>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이 논증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논증에서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한다. 그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실현 기준에 근거하여 이 논증을 분류한다면, 그냥 나쁜 논증이라고 해야 한다. 타당하지도 않고 개연적 뒷받침 여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논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것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 논증이 제시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예보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사례6>이 제시되었다고 해보자. 그럼, <사례6>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해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반면에 <사례6>이 내일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되었다고 해보자. 그럼, <사례6>은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략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논증 평가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다면, 생략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현 기준만을 가지고는 논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생략된 부분을 고려하면서 실현 기준을 적용시키

는 것은, 그 자체로 실현 기준을 거부하는 셈이 되어서 진퇴양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현 기준이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보였다. 그런데 실현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쁜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듯이 보인다. 우리가 실현 기준을 따랐을 때 나쁜 논증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뒷받침 관계는 어느 정도 성립하지만 그 뒷받침 관계가 너무 약한 논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논증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뒷받침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명제들의 집합 정도가 될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7>

문화나 도덕에 있어서 객관적 표준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는 이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례7>은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증 또는 ‘상대성’이라는 말의 애매성에 기대고 있는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증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실현 기준에 따르면, <사례7>은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까? 연역 논증은 아니다. 그렇다면, 귀납 논증일까, 나쁜 논증일까? 당연히 나쁜 논증이라고 평가해야 하겠지만, 실현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논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 차원이나 논리 교육 차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종류의 오류 논증들이 사실상 논증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의도 기준에 따르면 사정은 달라진다. <사례7>에서 ‘입

증'이라는 말이나 어투를 통해 뒷받침을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7>을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교육의 현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준은 실현 기준이라기보다는 의도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리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적 차원의 오류 논증이나 사람에 호소하는 오류 논증 등 다양한 오류 논증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논증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논증을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하다면, 실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효용성과 관련하여 덧붙일 것이 있다. 우리가 명제들의 집합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제시한 사람의 의도를 고려하여 그것을 논증으로 분류했다고 하자. 이제 그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나쁜 논증인지 평가하려 한다면, 먼저 그것이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귀납 논증을 평가하는 데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연역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오해하거나 귀납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오해하여 적절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런 경우에는 교정할 수 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 강한 귀납 논증, 약한 귀납 논증 등의 판단이다. 이러한 논증에 대한 평가 절차는 의도 기준을 받아들였을 때나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실현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좋은 논증인지 나쁜 논

증인지 평가한 다음에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인 논리교육에서 논증의 분류 및 평가 과정으로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가 아닌 듯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좋은 논증인지 나쁜 논증인지의 여부는 연역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귀납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유비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어떤 논증을 실현 기준에 따라 나쁜 논증으로 평가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그것이 나쁜 논증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하자. 실현 기준에 따르는 그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연역 논증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유비 논증이 갖춰야 할 몇 가지 덕목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답변은 그 논증을 연역 논증이 아니라 귀납 논증으로 간주하면서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먼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한 셈이다. 이러한 절차는 실현 기준과 일관적이지 않다. 이제 실현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의도 기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차례이다.

5. 의도 기준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많다. 홍경남은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학자로 코피, 레셔, 포어, 보로베이, 월뱅크스 등을 꼽고 있다.⁹⁾ 여기서는 국내 학자 이병덕의 견해를 살펴보자.¹⁰⁾

9) 홍경남(2012) 참조. 홍경남이 거론하고 있는 학자들 중 월뱅크스의 견해는 가장 독특하다. 그 역시 우리가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해결하려 하는데, 그가 이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표준적인 타당성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타당한 논증이란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와 논증 자체가 가지는 실제적인 뒷받침 강도가 일치하는 논증이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사이의 구별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성립한다고 상정되는 추론적 연결의 강도와 관련되어 있다.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포함한다. 반면에 귀납 논증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증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전제의 참이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밑줄은 우리의 강조)

이러한 견해의 밑줄 친 부분에 유념하면, 이병덕이 의도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의도 기준에 따르면, 타당성을 의도하는 논증이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고, 개연적 뒷받침을 의도하는 논증은 귀납 논증으로 분류된다. 많은 학자들이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실제 논리교육 현장에서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영철은 의도 기준의 난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의도 기준보다는 실현 기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홍경남이나 이영철을 제외하고는 의도 기준의 난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국내 학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작업에 동참하여 의도 기준이

그래서 타당한 연역 논증도 있고 타당한 귀납 논증도 있다. 여기서 연역과 귀납의 구분은 의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흥미로운 입장인 하지만, 우리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타당성 개념을 포기하는 전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윌뱅크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Wilbanks(2010) 참조.

- 10) 이병덕(2015), p. 19. 이병덕 외에도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내 학자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최원배도 그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결론이 받아들일 만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논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는 논증이다. 이런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논증이다. 이런 논증을 ‘귀납 논증’이라 부른다.”(밑줄은 우리의 강조) 최원배(2018), p. 13.

지닌 난점을 살펴보자.

의도 기준을 따른다면,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분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부딪치는 것이다. 의도 기준에 대한 주요 반론은 바로 이러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 파악 문제로 제기된다.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보우레스도 의도 기준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 파악 문제이다.¹¹⁾ 그 반론들의 핵심은 결국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의도 기준을 실현 기준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실현 기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앞에서 지적한 것은 바로 실현 기준이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논증을 접하게 될 때 그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사례8>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의도 기준에 따라 <사례8>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8>에 제시된 전제들은 결론을 반드시 참이 되도록 하는

¹¹⁾ Bowles(1994), pp. 164-171 참조.

연역적 뒷받침 관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례8>이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 제시에 대해 누군가는 우리가 실현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사례8>이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논증의 형식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실현 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사례6>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사례6>이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제시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즉, 생략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례5>는 연역 논증 또는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누군가는 여기서 동일한 형태의 논증이 상황에 따라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 의도 기준 역시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논증이란 논증 제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독립적인 언어적 구성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두 논증이 모두 <사례5>의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논증은 서로 다른 종류일 수 있다.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리가 <사례5>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제시되는 상황이나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논증 제시자가 논증을 의도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는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도 기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반론은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의도 기준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반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논증 제시자가 가질 법한 의도를 귀속시키면서 논증을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우리는 논증이 제시된 상황이나 맥락, 논증의 형태, 어투 등을 고려해야 한다.¹²⁾

이렇게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이 바로 자비의 원리이다. 여기서 자비의 원리란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논증의 강도와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논증을 분류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따른다면, <사례7>과 같은 것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례5>를 분류할 때는 논증 제시의

12)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논증 제시자가 구체적인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자비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자비의 원리란 의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한 것일 뿐 없는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논증 제시자가 뒷받침을 의도할 때 그 강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할 힘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뒷받침을 의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뒷받침의 의도에는 불명료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강도에 대한 생각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금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해석하는 데 자비의 원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 물론 논증 제시자가 개연적 뒷받침을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거나 필연적 뒷받침을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의도기준에 대한 반론일 수 없다. 실현 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의도 기준과 선언 기준

지금까지 우리는 의도 기준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 간단히 대응하면서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제 의도 기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반론에 대해 논의할 차례이다. 그 반론은, 논증 제시자가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긴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뻔히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즉, 누가 보아도 타당한 연역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귀납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나 누가 보아도 귀납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연역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례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사례9>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온다.
따라서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할 확률이 크다.

<사례10>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틀림없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

반론의 핵심은, 우리가 의도 기준에 따를 경우 <사례9>는 귀납 논증으로 <사례10>는 연역 논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례9>는 전제들의 참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보증해주지만 ‘확률이 크다’라는 표현을 볼 때 개연적 뒷받침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10>은 전제들의 참이 내일 소풍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보증해주지 못하지만 ‘틀림없이’라는 표현을 볼 때 필연적 뒷받침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도 기준에 따른다면, 의도된 뒷받침 관계만을 가지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은 의도 기준의 입장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우레스는 이러한 반론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³⁾ 말하자면, 실현 기준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반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런 대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논증을 분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사례9>는 귀납 논증으로 <사례10>은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사례9>는 연역 논증으로 그리고 <사례10>은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해 보임에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의도 기준을

13) 보우레스도 이런 식의 반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가 다루고 있는 반론을 정확히 말하자면, 소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타당한 삼단논법을 구사하면서도 개연적 뒷받침을 의도할 수 있고, 대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강한 [귀납적] 일 반화를 구사하면서도 필연적 뒷받침을 의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wles(1994), p. 169 참조.

보완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도 기준에 따르고 잘못된 의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현 기준을 통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도 기준과 실현 기준을 선언적으로 조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언 기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의도된 뒷받침 관계 또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실현된 뒷받침 관계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러한 선언 기준을 통해 반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선언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실현 기준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가 아니라 논증 평가어로 여기게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의도’라는 말에는 이미 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했지만, 우리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논증 제시자가 가지는 의도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논리교육의 현장에서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염두에 둘 때 ‘연역’과 ‘귀납’을 논증 분류어로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이영철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이영철은 연역 규칙을 따르는 논증만이 연역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역’을 논증 분류어일 뿐만 아니라 논증 평가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도덕 규칙을 따르는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연역 규칙을 규명하는 논리학도 도덕 규칙을 규명하는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규범학이라는 것이다.¹⁴⁾

물론 우리가 도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도덕적 행동이라

¹⁴⁾ 이영철(2016) 참조.

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덕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다. 마찬가지로 논리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고가 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 규칙은 여럿이 있을 것이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학문이 윤리학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논리 규칙도 여럿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규칙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학문이 논리학이다. 논리학이 규명해야 할 규칙에는 연역 규칙도 있고 귀납 규칙도 있다. 이영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연역 논증이란 연역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귀납 논증이란 귀납 규칙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논리학이 규범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대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규정한다면, ‘연역’과 ‘귀납’은 논증 분류어일 뿐 논증 평가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논리학이 규범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리학과와의 유비를 통해 ‘연역’과 ‘귀납’을 논증 평가어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큰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선언 기준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에 관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선언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잘못된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잘못된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제시된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도 귀납 논증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1>

비가 온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음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사례11>과 같은 것은 후건공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증으로 이해된다. 실현 기준에 따른다면, 이 논증은 연역 논증이 아니다. 반면에 의도 기준에 따른다면, 이 논증은 연역 논증이다. 물론 부당한 논증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 선언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11>이 ‘잘못된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귀납 논증으로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례11>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을 해결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선언 기준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의도가 명백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논증을 분류하는 데 관건이 되지만 그 경우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례9>와 <사례10>를 통해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의도 기준을 따르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의도 기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례9>는 연역 논증으로 <사례10>은 귀납 논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도 기준을 따를 때 <사례10>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틀림없이’라는 표현이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해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증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뒷받침 강도와 관련하여 뻔히

보이는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어느 누구도 1보다 낮은 확률에 기대어 필연성 뒷받침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⁵⁾

그렇다면, ‘틀림없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 강도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바람이나 신념, 내지는 논증 제시자의 대범한 성향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의도 기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례10>을 귀납 논증으로 분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사례9>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입장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더 살펴보자.

<사례12>

칼에 남아 있는 지문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보증한다.

이 사례는 칼에 남아 있는 지문에 근거하여 그가 범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논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의도 기준에 따

15)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논증 제시자가 타당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말하자면, 전체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99%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값이 “질병 D에 걸린 사람 중 99.99%는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다. 철수는 질병 D에 걸렸다. 따라서 철수는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논증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값의 논증은 어떤 논증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문은 뒷받침 강도에 관한 의도 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옹호하려는 의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값의 논증은 연역 논증으로 분류되고 부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야 한다. 물론 값과 같은 논증 제시자의 경우 논리 교육을 통해 타당성 개념을 교정하고 연역 논증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른다면 이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해야 할까? ‘필연적으로’라는 말을 통해 필연적 뒷받침이 의도된 논증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필연적으로’라는 말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논증 제시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제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의도 기준에 따라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할 경우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는 데도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할 때는 논증이 제시되는 상황이나 맥락, 어투, 논증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단순히 어투만을 고려하여 뒷받침 강도에 대한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논증 제시자의 의도 자체를 잘못 파악하여 연역 논증을 귀납 논증으로 귀납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분류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지만, 실현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하다면, 실현 기준과는 달리 의도 기준은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결론

이제 우리는 ‘부당한 연역 논증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근거는 물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의도 기준이 실현 기준보다 적절하다는 데 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실현 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는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논증 제시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망라적 배타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게다가 실현 기준은 논증교육을 위한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현 기준을 따를 경우 좋은 논증인지 나쁜 논증인지 평가한 다음에야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논증을 평가할 때는 적절한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평가기준이 적절한지는 일단 연역 논증인지 귀납 논증인지의 여부를 가린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연역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과 귀납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실현 기준을 따르게 된다면, 논리교육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오류논증들을 논증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드러났다. 물론 지금까지 거론한 실현 기준의 문제점들은 의도 기준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현 기준보다는 의도 기준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고, 결국 ‘부당한 연역 논증’은 형용모순을 저지르는 표현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선우환(2016),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왜 오류인가?”, 『논리연구』 19(2), pp. 185-232.
- 이병덕(2015), 『논리적 추론과 증명』, 서울: 이제이북스
- 이영철(2016), “연역과 귀납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 『철학연구』 115집, pp. 55-79.
- 홍경남(2012), “연역과 귀납의 분류”, 『철학탐구』 31집, pp. 181-231.
- 최원배(2018), 『논리적 사고의 기초』, 서광사
- 새먼, W. C.(2004), 『논리학(전정판 2판)』(곽강제 옮김), 서울: 박영사
- Bowles, G.(1994), “The deductive/inductive distinction,” *Informal Logic* 16, pp. 159-184
- Salmon, W. C.(1973), *Logic*, New Jersey: Prentice-Hall.
- Wilbanks, J. J.(2010), “Defining Deduction, Induction, and Validity,” *Argumentation* 24, pp. 107-124.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jihohong@skku.edu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Dongduk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yyeo@dongduk.ac.kr

Is ‘invalid deductive argument’ an Oxymoron?

Jiho Hong · Yeongseo Yeo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criterion that distinguishes deductive argument from inductive argument, the realized necessity relation between the premises and the conclusion defines deductive argument. In this case, ‘invalid deductive argument’ is an oxymoron. According to the intention criterion, the intended necessity relation between the premises and the conclusion defines deductive argument. In this case, ‘invalid deductive argument’ is not an oxymoron. In this paper, we will argue for the intention criterion. The realization criterion cannot classify an elliptical argument without referring to the intention represented in the argument. It cannot distinguish an argument from a set of propositions that is not an argument either.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that an intention may not be recognized in an argument can be resolved by referring to the principle of charity. Moreover, by distinguishing the expressions showing the conviction or the attitude to the argument from the intention of the argument, we conclude that the intention criterion successfully distinguishes deductive argument from inductive argument.

Key Words: Invalid deductive argument, The distinction between deductive argument and inductive argument, The intention criterion, The realization criterion, Prof. Youngchul Lee.